권금성(역사성1, 인지도7, 접근성10, 연결성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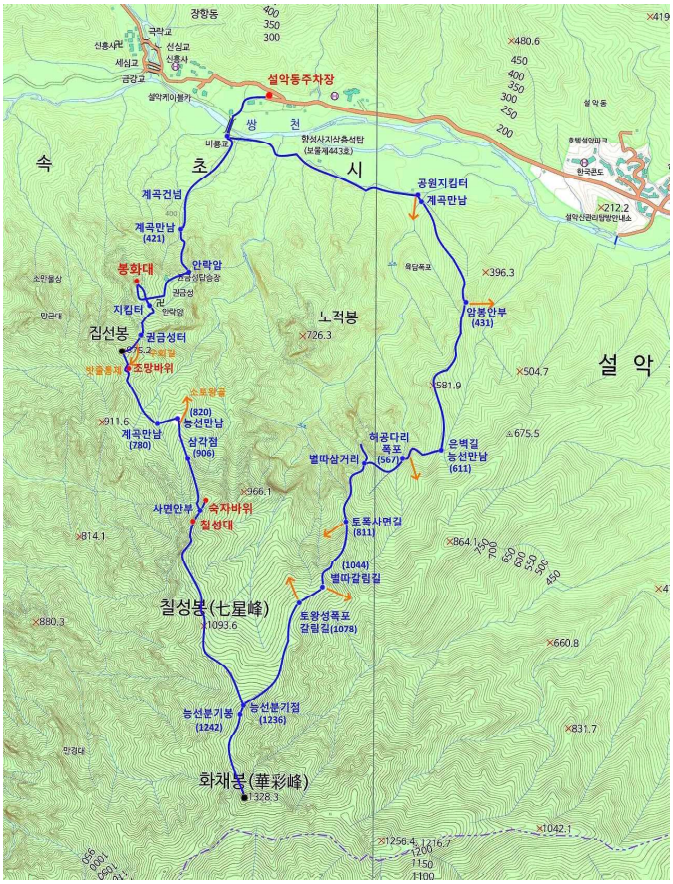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고려시대 석축 성곽. 산성.
둘레 약 3,500m. 일명 설악산성(雪嶽山城)이라고도 하는데, 현재 성벽은 거의 허물어졌으며 터만 남아 있다. 이 산성은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에서 북쪽으로 뻗은 화채능선 정상부와 북쪽 산 끝을 에워싸고 있는 천연의 암벽 요새지이다.
이 산성의 정확한 초축연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옹금산석성(擁金山石城)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둘레가 1,980보라고 되어 있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권금성이라 하고 권(權)·김(金)의 두 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서 난리를 피하였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라는 전설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낙산사기(洛山寺記)』를 인용하여 고려 말 몽고가 침입했을 때에 인근 주민들이 이곳에 성을 쌓고 피란했다고 설명하고 있음에서 고려 말기 이전부터 존속해오던 산성임을 알 수 있다.





성의 대부분은 자연암벽을 이용하고 일부는 할석으로 쌓았는데, 인근의 토왕성(土王城)과 규모가 비슷하다. 좌우로 작은 계곡을 이루며 물이 흐르므로 입보농성(入保籠城)에 알맞은 산성이다. 그러나 너무 높은 위치여서 오르내리기에 큰 힘이 들었으므로 조선 시대 이후로는 차츰 퇴락하여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다. 그러나 성의 좌우 골짜기에 경관이 좋은 토왕성폭포 등이 있고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어 쉽게 오를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오색령/한계령(역사성2, 인지도8, 접근성10, 연결성10)



강원도 인제군 북면과 양양군 서면 사이에 있는 고개.
높이 1,004m. 일명 재내 · 와천이라고도 한다.
백두대간의 설악산(1,708m)과 점봉산(點鳳山, 1,424m) 사이에 있는 안부(鞍部)이다. 고개 동쪽은 백두대간의 동해 사면으로 경사가 급하고, 오색과 양양을 지나 동해로 흘러드는 남대천 계곡으로 이어진다. 서쪽은 북한강 지류인 소양강 상류에서 동쪽으로 분기하는 북천 계곡과 연결된다. 도로는 이들 계곡을 따라 뻗어 있다. 옛날에는 소동라령(所東羅嶺)이라고도 불렸으며, 해안과 내륙을 잇는 험한 고개였다.



1971년 12월에 도로가 확장되고 양양에서 인제까지 도로가 포장되어 설악산국립공원의 관광자원 개발에도 크게 기여를 하였다. 고개의 서쪽 계곡에는 대승폭포와 장수대가 있고, 고개를 넘어 남대천 상류인 오색천에 이르면 암반에서 물이 솟는 오색약수가 있다. 오색약수에서 온정골 쪽으로 약 2㎞를 올라가면 오색온천이 나온다.

오늘날 한계령은 동해안의 낙산사와 의상대를 거쳐 외설악을 연결하는 관광도로의 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계령 부근에는 한계고성(寒溪古城)터가 있는데 지금은 그 문자리만 남아 있다. 이 지역은 몽골 침입 시 조휘(趙暉)의 모반으로 원나라에 투속되었다가 공민왕 때 탈환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구룡령(역사성1, 인지도5, 접근성10, 연결성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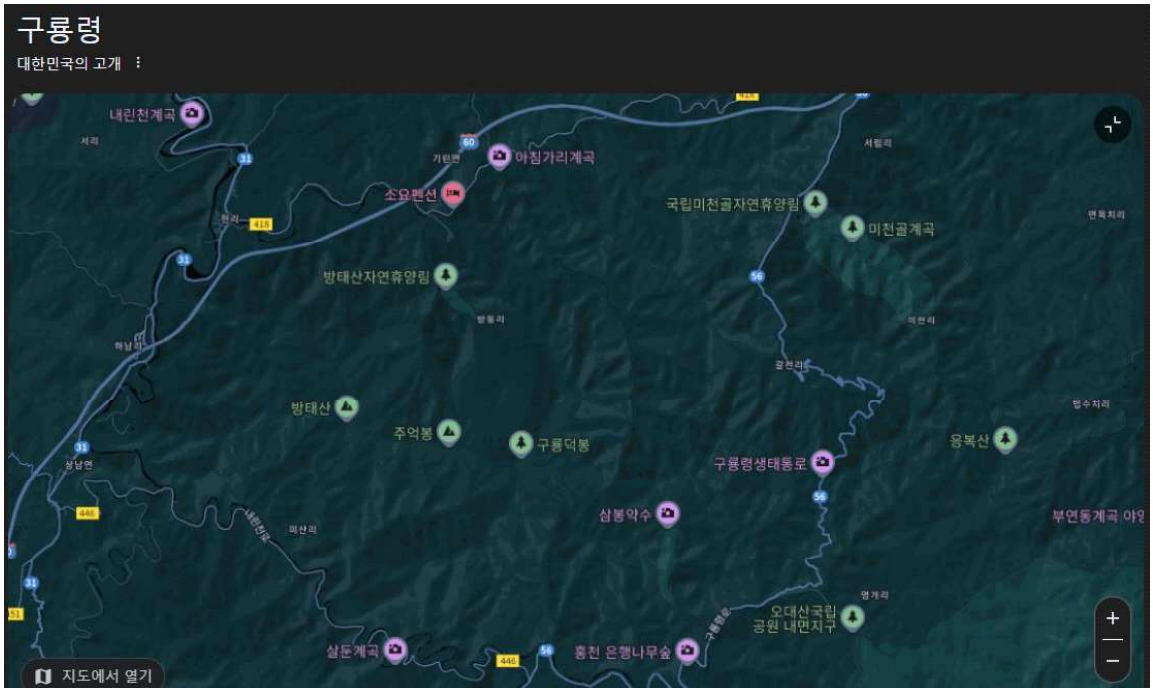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에 있는 명승.
구룡령 옛길은 양양군 서면 갈천리에서 홍천군 내면 명개리를 잇는 해발 1,013m의 높은 고갯길이다. 2007년에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옛길은 양양과 고성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갈 때 주로 이용하던 길로, 보행자들이 다니던 길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다. 현재의 구룡령 길은 차량 통행을 위해 별도로 개설된 56번 국도이다.



구룡령은 백두대간이 흘러내린 준령의 길목에 조성된 고갯길로서, 용이 굽이져 하늘로 승천하는 것처럼 아흔 아홉 구비를 넘어 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 '아홉 마리 용이 고개를 넘어가다가 지쳐서 갈천리 마을 약수터에서 목을 축이고 고갯길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래한 지명이라고도 한다.
백두대간은 조침령에서 구룡령을 거쳐 진고개로 연결되는데, 구룡령 옛길은 사람과 노새가 쉽게 올라 갈 수 있도록 완만하게 이어져 있다. 고갯마루에서 양양 방향을 바라보면 서북쪽으로 방태산이 위치하고, 홍천 방향에는 남동쪽으로 오대산이 자리한다.
구룡령 옛길 근처는 철이 생산되던 지역으로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에 의해 광산이 개발되면서 일대 주민들이 강제로 징집되었던 애환이 서려있는 곳이다. 현재도 당시의 철광소와 케이블카가 남아 있다.
옛길이 지나는 지역은 백두대간에서 산림이 울창한 지역 중 하나로서, 곧게 뻗은 노송이 아름답게 자라고 있고, 깊은 계곡과 천연림이 옛길의 정취를 나타내고 있다. 희귀한 야생화와 약초, 버섯 등을 흔하게 볼 수 있으며, 갈천약수와 산골분교의 정취를 지닌 갈천산촌체험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구룡령 옛길 안내
백두대간
구룡령옛길의 유래
홍천
56
명개리
영물약수
구룡령
1.9Km
서어돌나물
구룡령옛길정상
1.2Km
2.4Km
0.7Km
만월봉
응복산
4.5Km
약수삼
잣돌탑3이
소반생이
묘반생이
합천곡봉
감천리
양양
범 례
구룡령옛길
백두대간등산로
56번국도
산 림 청


구룡령
대한민국의 고개
내린천계곡
아침가리계곡
소요폭선
국립미천골자연휴양림
미천골계곡
방태산자연휴양림
방태산
주억봉
구룡덕봉
구룡령생태통로
응복산
삼봉약수
오대산국립공원 내면지구
살둔계곡
홍천 은행나무숲
지도에서 열기

곰배령(역사성1, 인지도10, 접근성6, 연결성6)



곰배령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 위치한 귀둔리 곰배골마을에서 진동리 설피밭마을로 넘어가는 높이 1164 m의 고개이다. 곰이 배를 하늘로 하고 누워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 곰배령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곰배령 일대는 생태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850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곰배령 일대는 1987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출처: 위키피디아)






N
S
인제군
양양군
귀둔리
진동리
진동2리
점봉산
산림생태관리센터
코스1
5.1km/1시간50분
코스2(하산전용)
5.4km/2시간
중간 초소
나무다리
곰배령
(1,164m)
전망대
철쭉
군락지
주목
군락지
하산통제
설악산국립공원
점봉산분소
설악산국립공원 곰배골 탐방로
단목령
설피마을
강선마을
진동교
가칠봉
서양양 IC
진동삼거리
범 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코스1
코스2(하산전용)
하산통제
지방도
고속국도
산림생태관리센터
구급함
자동심장충격기(AED)


난이도
코스 1 중급
코스 2 중상급
1,300m
1,200m
1,100m
1,000m
900m
800m
700m
600m
점봉산
산림생태
관리센터
중간초소
나무다리
곰배령
(1,164m)
전망대
주목군락지
철쭉군락지
점봉산
산림생태
관리센터
← 30분 →
← 40분 →
←40분→
←10분→
← 15분 →
← 30분 →
← 1시간 5분 →
2.2km
3.7km
5.1km
5.5km
6.2km
7.6km
10.5km